**2022.11.20#038 출애굽기 VIII, 15-17장**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가기!!**

**출애굽 이후 시내산까지의 여정**

고센(라암셋) 🡪 숙곳 🡪 비하히롯 🡪 홍해 🡪 마라 🡪 엘림 🡪 신광야(1개월) 🡪 르비딤 🡪 시내산

**왜 하나님은 마라와 같은 힘든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이 \_\_\_\_\_\_\_하시고자 하는 곳(시내산, 가나안)으로 가는 \_\_\_\_\_\_일 뿐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_\_\_\_\_\_하고 자기가 \_\_\_\_\_\_하는 그림을 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교회는 \_\_\_\_\_\_의 피로 산 한 생명을 \_\_\_\_\_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 아니라 \_\_\_\_\_\_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_\_\_\_\_한 것을 채우는 존재일 뿐이지 그 분이 영원히 함께 할 인격적 \_\_\_\_\_\_의 대상이며 \_\_\_\_\_\_의 대상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15:25**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_\_\_\_\_\_적 신뢰, 믿음의 \_\_\_\_\_\_를 가르쳐 결국에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사랑의 관계로 \_\_\_\_\_\_하도록 교육해 가시기 시작한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가르치는 방법…** \_\_\_\_\_\_\_ (\_\_\_\_\_\_\_\_)을 주시고 지켜나가기!!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시는 것은…**

1. 이것을 \_\_\_\_\_ 지켜감으로 인격적으로 \_\_\_\_\_ 관계, \_\_\_\_\_\_ 신뢰 받는 관계를 배워주시기 위해서다.

2. 한 공동체에서 \_\_\_\_\_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끼리 더불어 다투지 않고 \_\_\_\_\_\_ 있는 \_\_\_\_\_\_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백성들이 법도와 율례를 스스로 지켜감으로…**

가나안 땅에서 이제 더 이상 \_\_\_\_\_의식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_\_\_\_\_\_을 지키기 위한 약속의 \_\_\_\_\_\_\_\_\_들이 되어 \_\_\_\_\_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_\_\_\_\_\_\_ 함께 살아가는 \_\_\_\_\_의식, \_\_\_\_\_\_의식을 가지게 된다.

약속을 마음으로 지켜가는 \_\_\_\_\_\_가 쌓이면 그 다음에는 약속을 지켜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 약속을 지키지 못해도 대신 \_\_\_\_\_\_져주고 \_\_\_\_\_\_\_주는 관계가 된다.

\_\_\_\_\_\_ 싶은 것만 듣고 몇가지만 \_\_\_\_\_\_\_\_ 믿고 순종하는 것은 \_\_\_\_\_\_\_\_\_이다!!

**마라 Marah**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_\_\_\_\_\_적 관계가 아니라 \_\_\_\_\_\_적 관계임을 알게 하는 곳!!

**엘림**

**16장 신광야**

성도는 \_\_\_\_\_\_\_을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_\_\_\_\_\_함으로 그 \_\_\_\_\_\_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존재다!!

시험하신다는 것은 서로 \_\_\_\_\_\_\_\_적 \_\_\_\_\_\_의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_\_\_\_\_\_\_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_\_\_\_\_\_대로 \_\_\_하는 것이다.

**17장 르비딤**

상황과 환경이 \_\_\_\_\_\_\_수록 불평과 원망, 막말을 \_\_\_\_\_\_\_\_ 말고 하나님을 더 \_\_\_\_\_\_히 믿는 신뢰를 \_\_\_\_\_\_\_\_.

\_\_\_\_\_\_\_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_\_\_\_\_\_\_에도 남지 않는다.

하나님을 \_\_\_\_\_\_\_하지 말고 \_\_\_\_\_\_\_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있는 믿음의 삶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한주간의 거룩한 삶을 돕는 질문들...**

1. 왜 하나님은 백성들을 마라와 같은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 원망하는 태도를 통해 볼 때 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을까?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왜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주시며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시고자 했을까? 나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가? 왜 그런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신뢰를 받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은?

2. 만나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을 적어보라. 왜 같은 말씀을 듣고도 만나를 거두는 규정이나 처리하는 것을 어기는 사람들이 있을까? (16:19-20, 27-28)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함께 하기로 한 약속들을 지켜갈 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왜 온 백성들을 쉬게 하셨을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계명일까?

3.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긴 방법은? 왜 이런 방법으로 이기게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을 목적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개인주의의 장점과 단점을 적어보자. 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갈야 할까? 현재 내가 처한 모든 삶의 현실(가정, 학생, 직장)과 교회를 통해 함께 하는 사명들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자.

4. 말씀을 통해 나를 되돌아 볼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해결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꼭 지켜내야 하는 진리는 무엇인가?

5.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로 인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본문을 통해 약속해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6. TO Do List